불기 2556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지난 19일~20일 서울 동국대와 종로일대를 거쳐 조계사에 이르기까지 연등회가 거행됐고 이어 불교문화 한마당이 펼쳐졌다.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이후 처음 열린 연등회에는 10만 명의 등불결이 서울하늘을 수놓았다. 김형주·신재호 기자

우리 곁에 부처님 오셨네

연등축제 이모저모

동대문동장에 사부대중 5만명

연등행렬의 서막을 알리는 어울림마당이 사부대중 5만여 명이 모인 가운데 동국대 대운동장에서 거행됐다. 어울림마당은 연등행렬에 들어가기 전 행렬을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연등행사를 통해 부처님의 지혜 실천을 서원하는 자리다. 서울 주요 사찰의 어린이 청소년 대학생 청년 율동단이 그간 갈고 닦은 춤 솜씨를 선보이며 흥을 돋웠다.

장영섭 기자 fate@buljyo.com

종로 가로등 임시 소등 '연등물결'

연등회 제등행렬에 앞서 서울시와 종로구가 흥인지문(동대문)에서 보신각까지 가로등을 임시 소등하기로 해전서 10만개 달하는 연등 물결은 더욱 장관을 연출했다. 북, 장구, 명과리, 태평소 등 신명나는 가락이 종로 거리 곳곳에 울려 퍼지면서 흥겨움을 더했다. 서울 지역 주요 사찰뿐만 아니라 네팔, 몽골 이주민들도 전통의상과 등을 들고 참가했다.

임태규 기자 chw19@buljyo.com

연등축제 "매년 봐도 항상 새로워"

연등축제서 만난 칸보디아인 리사모스님은 "동국대에서 열린 법요식 행사에 참가하고, 연등행렬을 보기 위해 달려왔다"며 "매년 봐도 항상 새롭다"고 말했다. 남편과 함께 온 벨나스님은 "에이치투시요(44, 필리핀)씨도 "벨레이션에서만 봐왔는데 직접 참가해 많은 표현력 수 없이 기쁘다"고 소감을 밝히기도.

홍다영 기자 hong0@buljyo.com

휠체어면허증 발급받는 날

사회복지법인 승가원의 장애체험 행사는 진중하게 진행됐다. 누구나 쉽게 생각했던 "휠체어 밀기"도 막상 닥쳐보면 엄청엄청났다. 자동차 운전면허처럼 S자 운전과 어떠다운 광동주차가 상당한 주의력을 요했다. 이날 기능시험에 통과해 처음으로 면허증을 발급받은 김태영 군(동대부고 1년)은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이날 2000명여 휠체어면허증을 발급받았다.

김종찬 기자 kimg08@buljyo.com

인기코너 '우리웃'에 시민들 발걸음

인기코너 '생활속에 함께하는 우리웃'에서 올해도 가족 별자리는 "고집쟁이"의 유명한 대표는 "원래 호모도가 커진다"며 "자난해를 기준으로 10000개로 준비한 것이 빠듯하다"고 말했다. 올해는 특히 마 종묘의 바치와 저고리를 원색으로 디자인했다. 마의 5종두 저고리 10종두가 별 옷고 파란색이 어우러져 아국인은 물론이고 시민들의 발길을 멈추게 한다.

김종찬 기자 kimg08@buljyo.com

① 각당각색 1만의 연등불결이 서울 중심을 흐르고 있다.
② 총무원장 자승스님과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행렬 선두에 섰다.
③ 시각장애인들도 함께 했다.
④ 스케이트보드를 탄 외국인 참가자들.
⑤ 우리 모두가 부처님임을 상징하는 장엄들.

2556년 Buddha's Birthday
부처님오신날

대한불교조계종
백제천년고찰 능가산 개암사

변산반도 능가산 울금바위 아래 자리한 개암사는 백제무왕 35년(634년) 묘련대사가 창건한 천년고찰입니다. 저 옛날 선계사, 실상사, 청림사와 더불어 변산의 4대 사찰이었으나 남아있는 사찰은 개암사가 유일합니다. 원효·의상대사가 주석하며 옛 백제유민의 망국의 한을 위로하기 위해 중창, 수행한 도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개암사 대웅전(보물292호)은 그 어느 건물도 따를 수 없는 소박함속에 우아함을 간직하며 그 아름다운 울금바위와 함께 있으면 그저 대웅전 하나만으로도 감탄사가 절로 납니다. 법당안에는 14마리의 용과 7마리의 봉황이 있는데 정결한 마음에만 다 보인다고 합니다. 최근엔 중창을 통해 사격을 엄선하고 가람을 정돈하여 어느덧 변산을 대표하는 사찰로 자리하고 있는 개암사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회 주 혜 오
주 지 재 안
총 무 영 명

사부대중일동

전라북도 부안군 상서면 감교리 714번지 ☎ (063)583-3871